

# 자유연애, 문화자본, 그리고 젠더의 역학\*

— 이광수의 『재생』을 중심으로 —

윤영옥(전북대)

## < 목 차 >

- |                             |                      |
|-----------------------------|----------------------|
| 1. 서론 :<br>자유연애-결혼과 한국 근대소설 | 4. 지식인 여성과 불임의 문화자본  |
| 2. 자유연애, 문화자본, 구별짓기         | 5. 남성들의 문화자본과 젠더 역학  |
| 3.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문화자본       | 6. 결론 : 문화자본과 젠더 재형성 |

## 1. 서론: 자유연애-결혼과 한국 근대소설

근대 초기에 소설은 신문 잡지 등의 다른 인쇄물들과 더불어 중요한 공론의 생산공간이었다. 공론의 생산과 유통은 공론장이 가지는 규범적 정당성과 정치적 유효성을 통해서 한국 근대 여성의 표상 및 관련 사유 체계를 실제 사회구조에 견고하게 뿌리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근대의 공론장에서 자유연애는 봉건시대의 결혼과 이항대립을 이루면서, 새로운 문명의 지표로 등장하였다. 학교가 배출해낸 근대 지식계층이 기존의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짓고 정당화하는 사회문화적 구성물<sup>1)</sup>이었던 자유연애는

---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1019476)

근대 전환기에 남성과 여성의 역학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근대문학은 자유연애의 일반화된 상징적 매체였고, 자유연애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문화적 조건은 근대문학의 조건들이었다.’<sup>2)</sup> 자유연애는 한국 근대 소설에서 단순한 감정이나 열정의 이름일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근대적인 사회관계를 지칭하기 위해 고안된 명칭이며, 근대성의 숨겨진 영역이기도 하였다.<sup>3)</sup>

한국 근대 초기에 자유연애는 자유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었으며, 근대의 주체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한 방식으로 인식되었다. 자유연애는 근대교육을 통해 새롭게 학습된 열정이었으며, ‘자유연애-결혼’은 근대의 표상·사유 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사회 계급의 형성을 둘러싼 자본의 분배 및 투쟁의 역학관계로 모습을 드러내었다.<sup>4)</sup>

근대 소설에서 자유연애는 ‘근대화를 추동했던 새로운 사유의 틀을 구성하는 동시에, 지식과 권력이 결합된 담론의 대상이자, 담론 간 투쟁의 장소’였다.<sup>5)</sup> 자유연애는 표면적으로는 조혼의 불합리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근대적 계몽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성을 둘러싼 권력 관계를 유포하고 조정하는 매개 역할을 하였다. 자유연애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성적 자기 결정권 주장과 더불어 등장하였지만, 차츰 남성과 여성의 계급을 조정하는 개념으로 작용하면서 근대 젠더 재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근대소설에 나타나는 자유연애의 표상은 근대 여성지식인의 공적 이미지와

1) 권보드래, 『연애의 형성과 독서』,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 제7호, 2001, 102면.

2) 김동식, 『연애와 근대성』,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 제18집, 2001, 302면.

3) ‘사랑이 인류의 보편적 속성과 관련된 감정의 영역이라면, 연애는 역사적으로 출현한 사회적 관계’이다 (김동식, 『연애와 근대성』,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 제18집, 2001, 300면).

4) 연애는 정한숙(1977), 최원식(1984) 등에 의해서는 주로 대중성, 통속성과 흥미성의 시각에서 연구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 서영채(2002)는 ‘낭만적 사랑’이라는 개념을 통해, 근대 주체와 관련하여 연구하였다. 2000년대 이후 최혜실(2000), 정혜영(2000), 고미숙(2001), 이혜령(2001), 김동식(2001), 김미영(2003), 권보드래(2003), 신수정(2003), 김지영(2007) 등은 연애의 사회적 의미를 근대 지배 권력과의 관계를 통해 조망함으로써, 젠더 형성의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다.

5) 김지영, 『연애라는 표상』, 소명출판, 2007, 15면.

맞물려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근대 여성지식은 기존의 젠더 관계를 변화시키는 혁명적 선구자에서 성적으로 방종한 도덕적 타락자로 변화하게 된다. 변화된 여성 지식인의 표상은 당대 공론장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으며, 자유연애-결혼의 이면에 근대의 전형적인 여성지식인인 ‘신여성’의 표상을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이 있었던 것이다.<sup>6)</sup> 근대 여성지식인 표상의 변모는 이광수, 염상섭, 김동인, 전영택 등의 남성작가의 작품들에서 포괄적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양상은 특히 이광수의 소설들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재생』에는 그러한 양상들이 집약되어 있다. 『재생』은 부분적으로 김동인의 『악한 자의 슬픔』과 전영택의 『혜선의 사』, 나도향의 『환희』와 유사한 줄거리를 갖고 있다. 『재생』에는 혁명가에서 타락자에 이르는 여성지식인의 표상들이 상투적으로 재현되어 있으며, ‘자유연애-결혼’에 관련된 섬세한 묘사가 전개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재생』은 자유연애-결혼과 관련된 여성지식인의 표상 및 젠더 형성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구인모(2002, 2004), 이화형·유진월(2004)의 연구에 따르면, 근대 소설 속에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의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의 이면에는 단지 ‘애정/욕망’의 문제를 넘어서는 당대 지배권력의 작용이 있었다.<sup>7)</sup> 근대소설에서 자유연애-결혼에 작용하는 권력관계는 인물의 형상화 작업과 연관된 젠더 재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근대 소설의 여성인물들은 대부분 엘렌 케이의 영향을 받아 ‘자유연애-자유결혼-자유이혼’에 이르는 주체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지만,<sup>8)</sup> 결혼을 앞두고 대부분의 낭만적 사랑은 추동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사실들이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연애-결혼의 과정에서 인물들이 사적

6) 윤영옥, 『1920~30년대 여성 잡지에 나타난 신여성 개념의 의미변화와 사회문화적 의의』, 국어문화회, 『국어문학』 제40집, 2005 참조.

7) 이와 관련하여 이영아의 연구도 근대 육체와 자본과 권력의 상관관계를 주목하고 있어서, 자유연애와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이영아, 『이광수 『무정』에 나타난 ‘육체’의 근대성 고찰』, 『한국학보』 28권 1호, 2002).

8) 이와 관련해서는 구인모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구인모, 『한일 근대문학과 엘렌 케이』, 한국여성문화학회, 『여성문학연구』 12집, 2004.).

친밀감을 형성하고, 사적 친밀감인 사랑이 결혼이라는 공적 제도에 편입되는 과정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섬세한 조명이 필요하다. 즉, 여성과 남성의 만남과 헤어짐을 중개한 당대 지배권력과 사회문화 제도의 작용에 대해 좀 더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근대 한국 여성과 남성의 자유연애-결혼의 플롯은, 인물들의 사랑의 감정과 정치적 성향 뿐 아니라 출신계급 및 부모의 재력, 문화취향, 본인의 경제력 등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유연애-결혼의 향방이 인물의 문화 취향으로부터 경제능력까지 아우르는 근대 자본주의 체제에 상응하는 자본의 구조에 연동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근대소설에 재현된 자유연애-결혼의 플롯에 ‘자본’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근대 젠더 재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에 근대 소설의 장에 나타난 젠더의 조정 및 재형성 과정을 문화와 취향, 나아가 그것의 숨겨진 동인인 자본들의 역할을 통해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sup>9)</sup> ‘자유연애-결혼’을 둘러싼 자본들의 구체적인 관련양상을 『재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자유연애, 문화자본, 구별짓기

본 연구는 자유연애-결혼의 과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대 소설의 장에서 연애를 둘러싼 여성의 재현을 ‘자본’과 연관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에서 사용하는 자본의 개념은 부르디외, 난린, 알튀세르 등이 사회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했던 관련 개념들을 원용하였다. 자본 개념은 부르디외의 분류에 따라 문화자본, 사회자본, 경제자본, 상징자본으로 구분하였다.<sup>10)</sup> 문화자본은 가족이나 교육체계에 의해

9)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은 문학 연구에 사회학적 개념인 ‘자본’의 개념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그 동안 임명진(2011), 공종구(2012), 윤영욱(2009, 2011)에서 시도되었고, 부분적으로는 윤조원(2005)이나 김주현(2009)에서 시도된 방법이다.

10) 자본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저술을 참고하였다.

공유되는 문화취향으로 말투, 몸짓, 지식, 교양, 취미, 감성 등의 무형의 형태와 그림, 책, 사진, 도구 등의 물질적 형태가 존재하며 학력이나 졸업장, 자격증, 시험합격 등의 제도화된 형태가 있다. 사회자본은 사람의 사회연결망과 유대에 배태된 개념으로 어떤 개별 행위자가 직간접적인 사회유대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부, 권력을 의미하며, 상징자본은 정치적 위치로 전환 가능한 위신과 신망, 존경 등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연애와 관련된 자본으로 '문화자본'과 경제자본, 사회자본의 관계를 주목하며, 자유연애에 깊은 영향을 준 교육제도를 중시하여 문화자본의 하위 개념으로 학력자본을 포함시켰다.

부르디외가 주목한 바와 같이, 문화자본은 근대 이후 계급의 구별짓기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데, '문화 취향이란 경제적 능력을 떠나 설명될 수 없으며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고착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sup>11)</sup> 근대 소설에 나타난 '자유연애—결혼'을 둘러싼 플롯에서 인물들의 문화 취향은 연애와 결혼의 향방을 가르는 자본과 깊은 영향관계를 형성하며 근대 젠더 담론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유연애는 남성과 여성이 문화 취향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사랑의 근대적인 형태로, 근대 여성의 경우 여학교 이상, 남성의 경우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과 문화, 취향, 교양 등의 아비투스<sup>12)</sup>와 관련된 문화자본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자유연애를 둘러싼 문화자본의 축적 및 다른 자본과의 결합 양상은 인물들의 관계와 근대 젠더 표상 체계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의 성적 정체성은 타자인 남성과의 구별짓기를 통해 형성되며, 근대 소설에서 '여성'을 재현하는 방식은 인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사회적 변동과 연동되어 있는 '사회적 행위자'인 인물과 자본과의 관계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면화되고 육화(肉化)된다. 자유연애와 결혼이라는 사회적 삶 속에서 전개되는 성적 친밀성의 이면에는 자본의 관계가 현란하게 형성된다. 인물이 속한 집단과 다른 집단의 구별짓기를 위해 동원되는 근대성의 다양한 변별적 지표들과

Pierre Bourdieu, 최종철 역, 『구별짓기 상(上, 下)』, 새물결, 1995,

Nan Lin, 김동운·오소현 역, 『사회자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60면,

Pierre Bourdieu, 정일준 역,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7, 31~34면 참조.

11) 홍성민, 『문화와 아비투스』, 나남출판, 2000, 310면.

지식인들의 성적 정체성은 자본의 여러 형태들인 문화자본, 사회자본, 경제자본, 상징자본의 이합집산의 형태이기도 한 것이다.

자유연애는 근대적인 학교제도가 배출한 근대 지식인이 기존의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짓고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문화적 구성물로서,<sup>12)</sup> 젠더와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결혼생활의 영육일치를 주장하는 연애가 결혼의 조건으로 등장한 것은<sup>13)</sup> 남녀간의 열정을 공식적인 담론의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동시에, 젊은 세대들이 부모세대로부터 독립하여 개인적인 사랑과 성적 관계를 추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결혼체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자유연애, 혹은 연애의 자유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과 정신적, 육체적 건강,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고려하는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자유연애는 무엇보다 신형 지식인 계층이 결혼의 성립과정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다 폭넓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연관되어 있었다. ‘근대적 연애는 배움을 통해서만 익힐 수 있는 여러 과정이나 기법’을 요구할 뿐 아니라 ‘근대적 교육을 받은 사각모가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자 상징이었다.’<sup>14)</sup> 자유연애는 근대 교육을 받은 지식인 계층의 ‘영육일치’의 도덕성과 서구적인 문화취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화 취향은 ‘차별화 과정을 통해 차이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차이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획득된 성향이다.’<sup>15)</sup> 자유연애는 근대 지식인 계층이 근대 교육을 통해 습득하게 된 문화취향을 통해 스스로를 전통적인 지식인이나 하층계층과 변별하려는 성향에서 비롯된 문화자본의 파생물이라 할 수 있다.

12) 김동식, 『연애와 근대성』,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 제18집, 2001, 325면.

13) 이광수는 ‘혼인 없는 연애는 상상할 수 있으나, 연애 없는 혼인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연애야 말로 혼인의 근본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이광수, 『혼인에 대한 관견』, 『학지광』 12, 1917.4.(『이광수전집』 17, 삼중당, 1962. 55~56면.). 이러한 인식은 여성작가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김명순 소설 『나는 사랑한다』는 엘렌 케이의 영향을 받아 결혼의 도덕성의 기준을 사랑에 두어 ‘애정없는 결혼은 매음(賣淫)’이라고 주장하였다.

14)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121~122면.

15) Pierre Boudieu, 최종철 역, 『구별짓기 하(下)』, 새물결, 1995, 762면.

근대 교육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문화 취향 내지 문화 자본은 신홍지식인 계층의 '자유연애-결혼'을 성립시키는 물질 조건인 경제 자본의 취득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자유연애가 결혼에 이르기 위해서 경제자본은 필수조건이었다. 고등 교육의 결과 습득하게 된 문화취향은 부분적으로는 신여성의 계층적 자의식과 연계되어 있었다. 고급 문화취향은 경제 자본 없이는 획득되거나 유지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자유연애-결혼 복합체에서 드러나는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의 유착 양상은 근대소설에서 젠더의 재형성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 3.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문화자본

근대 교육체계의 산물인 근대 지식인들이 경제자본에 대해 느끼는 선망과 두려움, 떨림은 근대 소설의 강력한 화제 중 하나이다. 이광수의 『무정』에서 남성 인물 이형식은 김선형의 영어 개인 교사로 김장로의 집으로 간다. 그는 김장로의 집으로 가면서 그를 만나기도 전에 몸으로 그의 재력을 느낀다.

비록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는 예수의 사도연마는 그도 개명하면 땅도 사고, 은행 저금도 하고, 주권과 큰 집도 사고, 수십인 하인도 부리는 것이다. 김장로는 서울 예수교회 중에도 양반이요, 재산가로 두세째에 꼽히는 사람이다. 집도 꽤 크고 줄행랑조차 십여 칸이 늘어있다. 형식은 지위와 재산의 압박을 받는 듯해 일면 무섭기도 하고 불쾌해하기도 하면서, 소리를 가다듬어, 『이리오너라.』하였다.

그러나 목소리는 아무리 하여도 딱 자리가 잡히지 못하고, 시골사람이 처음 서울 와서 부르는 소리와 같이 어리고 떨리는 맛이 있었다. (이광수, 『무정』, 우신사, 10면)

윗 글에서 이형식의 목소리는 소위 경제 자본으로부터 소외된 신체의 전형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는 불편함과 부자유를 표출함으로써 인물의 사회 공간상의 위치를 반영하고 있다. 새로운 지식계층인 형식의 '뺨뺨 부르주아적 경험은 우선 자신의 신체와 언어를 아주 수줍어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곤란함으로부터 시작'<sup>16)</sup>된

16) Pierre Broudieu, 최종철 역, 『구별짓기 상(上)』, 새물결, 1995, 334면.

다. 경제자본의 위력에 대한 지식인의 자의식은 짐짓 그것을 초월하려는 척 하는 태도에서 부자연스럽다. 새로운 지식의 체계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물의 자부심이 사회공간에서 객관화되는 자아 사이에서 부조화되거나 불일치되는 정도가 클수록 신체적 불편함과 수줍음, 부자연스러움이 커진다.

『재생』에서 순영의 신체 역시 경제 자본의 위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주인공 순영은 기미년에 함께 만세를 부르다 감옥에 간 신봉구를 좋아하였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유한 백윤희에게 점차 마음이 기울어진다. 본처를 내쫓고, 해마다 기생첩을 갈아대는 인물인 백윤희가 이제는 여학생첩을 들이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속물스럽고 더럽게 생각하였지만, 순영은 그의 집을 방문하고는 ‘알 수 없는 힘’이 자신을 압박함을 느낀다.

순영은 그 설비의 화려함에 아니 놀랄 수가 없었다. 그의 잠간 진정되었던 정신은 다시 산란하기 시작하였다. 식탁 위에 놓인 기명들이 모두 은인 것과 주전자와 술잔 같은 것에는 모두 금으로 아로새긴 것이며,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기명에 담긴 이름도 알 수 없는 음식도 순영에게는 놀라왔거니와, 방에 깔린 보료와 방석에 모두 일월무늬가 뚜렷뚜렷한 모본단인 것이며, 이 구석 저 구석에 놓인 화류 문갑 화류 탁자에 오색이 영롱하게 자개로 아로새긴 것이며, 미단이 갑창들까지도 모두 금시에 피가 뚝뚝 떨어질 듯한 화류로 된 것이며, 갑창에 삐죽 내어 민 겹미단이며 초록빛하며 이런 모든 것이 수업는 바늘 모양으로 순영의 신경을 푹푹 찢었다.(『재생』, 42면)

위 예문에서 순영에게 알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오는 힘은 문화취향과 관련된 일종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다. 순영이 느끼는 압박감과 불편함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소유하기 어렵다는 박탈감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높은 교육에 의한 고급 문화취향과 이것을 일상화시킬 수 없는 경제적 취약성은 순영의 신체적 반응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대 여성 지식인인 순영의 ‘문화취향을 구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일상적 공간에서 실천할 수 없는 생활조건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일종의 사회계층적 불안과 관련되어 있다.

여성지식인의 사회계층적 불안은 물질에 의해 매개되는 가짜 가치를 추구하게 하고, 나아가 성적 자기 결정권에도 영향을 끼친다. 허영심에서 비롯된 물질에



대한 욕망이 커짐에 따라 순영은 ‘자유연애-결혼’의 틀을 벗어나 ‘경제자본-결혼’의 틀로 들어서게 된다. 경제 자본에 대한 욕망 때문에 백윤희를 욕망하게 되는 과정은 르네 지라르가 논의한 바 있는 가짜 가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과정과 유사하다. ‘허영심으로 인한 욕망은 진정한 욕망의 더럽혀진 그림자다.’<sup>17)</sup> 순영의 ‘결혼’과 관련된 욕망의 대상들이 사랑에서 경제자본으로 변모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보다 부유한 상대와의 결합을 추구하는 과정은 자유연애가 물적인 매개에 따라 어떻게 통속화되는가를 드러낸다.

크고 화려한 집과 방안의 가구 및 장식물들, 무엇보다 고급 피아노는 피아노를 전공하는 순영에게 친근감을 넘어서 ‘내가 주인’이라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며, 마침내 그 물건들의 주인에 대해 호감을 갖도록 한다. 둘째 오빠의 사업실패로 경제적으로 몰락한 가난한 여학생 순영이 백윤희의 속물적 속성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윤희와 결합하게 되는 힘을 제공하는 것은 문화취향과 연관된 경제적 능력이다. 철 지난 모시생포 치마에 낡은 구두를 신은 순영이 비단으로 장식된 화려한 자동차와 대리석과 화류목으로 꾸며진 으리으리한 집에서 한편으론 초라함을 느끼지만, 다른 여성인물인 명선주에 대해서는 강한 우월감을 느끼는 장면은 순영의 욕망의 변모와 변모이유를 말해준다.

순영이 선주에게 계층적인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관련된 남성들의 경제력이다. 이 작품에서 남성의 경제력과 그 파생물인 값비싼 물건들, 집, 그리고 그걸 통해 드러나는 고급 문화취향은 순영과 백윤희를 이어주는 매개물이다. 자신의 학력과 외모, 피아노 실력이 선주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순영은 백윤희 집에서 마치 자신이 그 집 주인이 된 것처럼 느낀다. 백윤희가 명선주와 사귀는 윤변호사보다 훨씬 부유하기 때문에 백윤희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백윤희의 집과 재산이 자기 것인 양 선주에게 우월감을 느낀 것이다.

순영이 선주에 대해 느끼는 우월감은 백윤희의 경제력이 매개한 상상적 소유에 따른 것이며, 성을 물질적 교환가치로 환산하는 잠재의식에서 비롯된다. 경쟁관계에 놓인 자신과 선주의 위상은 백윤희와 윤변호사가 소유한 물질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선주를 이기고 싶은 순영은 백윤희를 욕망하기에 이른다. 순영은

17) 르네 지라르, 『삼각형의 욕망』,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01, 62면.

백윤희를 방문한 뒤로 자신을 좋아한다는 김교수에 대한 관심을 정리하게 된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 교수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과 명예도 있고 재산가이기도 하지만, 그의 경제력은 경성에서 세넷 짜하는 백윤희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상대 남성의 경제력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가늠하는 순영은 이미 문화자본과 경제 자본의 교환체계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자유연애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관계에 따라 백윤희와의 결혼을 진행시킴으로써 자유연애가 파생한 속물적 가치의 지배를 받는다.

여성지식인들과 다르게 남성 인물들은 상대 여성의 학력과 외모, 문화 취향의 수준을 통해 자신의 계층적 우월감을 갖는다. 남성 인물들은 자신의 지불 가능한 경제력과 연관시켜 여성 인물의 문화자본과 외모의 교환가치를 가늠하기 때문이다. 윤변호사는 순영을 보자 바로 순영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며, 순영의 오빠 순기에 게 백윤희와의 거래를 부추긴다.

“그러나, 노형이야 염려하실 것 없지요 — 매씨가 저만하신 데야 누가 경쟁을 해요? 지금 백이 정신 다 뺏겼소이다 — 이 틈을 타서 바짝 줄여야지 — 아따 한 이천 석 빼어 내시오구요. 매씨가 이십만 원짜리는 착실히 되는 걸.”

“그런데, 내가 노형이니 말이지, 천석이면 천석, 몇 십 만원이면 몇 십 만원 작정을 해놓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다가는 매씨만 떼우고 마시오. 그 동안에도 몇 십 명 여자가 헛수고를 했는지 아시오? 그러기에 아예 단결에 줄여대요.”(『재생』, 49면)

‘자유연애-결혼’을 매개하는 경제자본은 성(性)과 근대적 교환관계를 형성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 인물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경제 논리에 의해 무력화되어 간다. 인물들의 사회연결망은 여성의 문화자본과 육체를 돈으로 교환하는 시장이 되어간다. 돈을 지불할 수 있는 편이 사회적으로 우월한 입장이 된다. 여성의 문화자본을 성의 경제적 교환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여성지식인의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의 과도한 불일치이다. 그러한 불일치는 여성 인물들의 ‘자본의 상호축적 효과’<sup>18)</sup>에 치명적 약점이다.

18) 자본의 상호축적 효과란 경제 자본이 축적되면 교육수준과 문화 관련 지식이 올라가고 사회적으로 유능하다는 평판을 받아 문화자본과 상징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문화자본

순영의 셋째 오빠 순홍과 함께 기미년 만세를 부르고 경찰에 잡혔다가 3년 후 출소한 후, 신봉구는 목숨걸고 사랑했던 순영을 만나러 간다. 순영은 신봉구에게 자신의 옷을 장만하고 기타 비용으로 오백원을 요구하며, 신봉구와 함께 석왕사로 가서 약혼을 한다. 이미 부유한 백윤희의 첩이 되어 백윤희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만을 사랑하는 신봉구와 몰래 약혼한 순영은, 백윤희와 신봉구, 즉 돈과 애정 사이에서 갈등한다. 결국 여성지식인 순영은 돈은 없지만 사랑하는 신봉구가 아니라, 사랑은 없지만 돈이 많은 백윤희를 선택한다. 결국 신봉구에게 오백 원을 돌려주고 백윤희와의 연애없는 혼인을 선택한다.<sup>19)</sup>

위의 일련의 사건들에서 순영 역시 자신의 외모와 문화자본을 경제적 교환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영이 고급 문화취향을 만족시키는 부유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남성들의 경제적 교환체계로 흡수되는 것은 이미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고 시장경제에 자신을 상품으로 내놓은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재생』에서 여성의 문화 자본이 남성 중심의 경제적 교환관계로 환원되면서, 여성지식인은 자유연애-결혼이 발생시킨 주체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상실하게 된다. 자유연애-결혼이 내세우고 있는 주체적인 성의 자기결정권은 경제자본을 소유한 남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의 불평등한 세력관계 속에서 동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지식인이 활동하는 공적인 사회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 4. 지식인 여성과 불임의 문화자본

이광수 소설에서 나타나는 여성 지식인과 남성 지식인의 사회적 위상은 문화자본

---

(예컨대 학력자본)이 높아지면 경제적 수입이 많아지고 사회적 연결망이 확대되거나 사회적 명예도 높아져 경제자본이나 사회자본, 상징자본이 함께 축적되는 것을 말한다 (Pierre Bourdieu, 최종철 역, 『구별짓기 하(下)』, 새물결, 1995, 479, 662면 참고).

19) 백윤희와 동거하던 순영은 백윤희의 공식적인 부인이 되는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가 있는 백윤희의 첩이 되는 혼인식을 올리게 된다.

과 다른 자본들의 역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식인 계층의 문화자본은 성차에서 비롯되는 차이를 구성하고 재구성하며, 성정체성을 구체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정치’<sup>20)</sup>를 표면으로 부각시키며 공문화한다. 『재생』에 나타나는 자유연애-결혼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문화자본은 변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재생』에서 순영의 자유연애가 혁명적인 열정에서 통속적 속물로 전락하는 과정은 여성지식인의 사회적 위상의 변모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또한 여성의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의 결합방식과 맞물려 있다.

먼저 순영의 출신 계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순영은 중간 계층 출신으로 그녀와 그녀의 둘째 셋째 오빠 모두 대학에 다니거나 다녔다. 하지만 둘째오빠가 벌이는 사업마다 실패하는 바람에 그녀 집안은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된다. 순영은 근대적인 대학교육을 받고 교육의 결과 습득하게 된 문화자본과 사회의식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업자금을 얻어내기 위해 백윤희의 첩이 되도록 종용하는 둘째 오빠의 계약에 넘어간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녀는 타의반 자의반으로 결혼을 통해서 백윤희의 경제자본에 종속된다.<sup>21)</sup>

순영은 높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자본과 연계하거나 자본을 증식하려고 하지 않으며, 교사로서의 직업의식도 약하다. 그녀의 전공이 피아노이기 때문에, 문화취향은 고급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광수 소설에서 여성지식인들은 대부분 음악(주로 피아노)이나 가사를 전공하고,<sup>22)</sup> 드문 경우에는 수학이나 의학을 전공하기도 한다.

남성작가의 소설들에서는 신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취득한 문화취향을 머리, 화장, 구두, 양말, 향수, 가방, 양산 등 일상적인 상품들과 음악회와 음식과 미술

20) Anthony Giddens,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1996, 289면.

21) 남성작가들의 작품에서 가난한 여학생이 부유하고 나이 많은 남자에게 겁탈을 당하는 장면들이 상투적으로 등장한다. 『약한자의 슬픔』(김동인의 엘리자베스, 『혜선의 사』(전영택)의 혜선, 『무정』(이광수)의 영채, 『재생』(이광수)의 순영, 『유정』(이광수)의 문임 등이 모두 겁탈당하는 가난한 고학력 여학생(출신)들이다.

22) 『무정』의 영채와 병욱, 『재생』의 김순영과 오선주가 음악을 전공하고 김경주는 가사를 전공한다. 드물게 『무정』의 김선형은 수학을, 『유정』의 정임은 의학을 전공한다.

등의 취미, 휴가와 사교 모임 등 매우 소비적이고 소모적인 사례들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획득한 문화취향을 돈의 소비와 연계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거나 사회적으로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력이 결핍된 상황에서, 고급문화 취향과 자신의 경제력을 초월하는 과도한 소비는 여성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남성에게 종속시킨다. 여성지식인들의 경제적인 취약성과 과도한 소비성향을 남성에게 종속되는 논리적 근거로 부각시킨 것이다. 『재생』에서 다음과 같은 장면들은 고학력 여성들의 문화취향과 관련된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모습을 부각시킨다.

윤변호사집 안방에는 많은 여자들이 모였다. 마루 앞에 어지러이 벗어들 놓은 구두로 보아 그 여자들이 신식 교육을 받은 자들이나 것과 또 그 구두의 대개는 흙도 안 묻은 것을 보아서 적더라도 그들이 출입할 때에는 그들이 인력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인 것을 추측할 것이다. (... 인용자 생략)

방바닥에는 화투 트럼푸장이 너저분하고 한편 구석 등근 키작은 탁자 위에는 납지에 싼 값이 싸고 비맛날 듯한 과자와 열 개 한갑에 사십여 전이나 하는 향기로운 청지연과 서양서 온 포도주와 브랜디 병과 오색이 찬란한 유리 접시에는 황금같은 네이블 호박빛 나는 능금이 담겨 놓였다. 조그마한 유리잔들에 핏빛 같은 술이 조금씩 담긴 것을 보면 이 색시들이 얼굴이 붉은 것이 반드시 웃고 떠들기에 흥분된 때문만 아닌 듯 하였다.(『재생』, 257~258면)

『재생』에서 순영과 교류가 있는 여성들은 여학교를 졸업하고 동경유학을 다녀오거나 기독교 신자들로 대부분 돈 있는 사람의 첩이거나 시집 못 간 교사이거나 예배당 찬양대원으로 ‘좋게 말하면 여자 중의 귀족이요, 좋지 않게 말하자면 여자 부랑자들’<sup>23)</sup>이다. 그중에서 순영이나 선주처럼 부자의 첩이 된 사람들이 가장 성공한 경우이다. 한때는 애국자로서 삼일운동에 참가하였던 사오백 명의 여성지식인들이 결혼을 기점으로 나라와 민족 대신 개인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미두(米豆)하고 기생집에 드나들며 술이나 마시는 남자들과 닮아간다.

자신의 학력과 문화취향을 부자와의 비정상적인 결혼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오히려 사내첩을 두는 여성지식인의 행동에는 『무정』에서의 서양 문물에 대한

23) 이광수, 『재생』(이광수 문학전집 제2권), 삼중당, 1965, 259면.

선망과 애정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신념도, 교육에의 열정과 도덕적 자의식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러한 것들에 대한 환멸과 냉소만이 자리하고 있다.

“왜 못해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 따로 있고, 오빠에 대한 사랑 따로 있지요. 그래 남자는 민적에 이름 있는 본처라는 것 두고, 기생첩 두고, 또 유치 취처로 처녀 장가 들고— 계집을 둘씩 셋씩 해도 상관없고, 그래 여성은 순결하게 플라토닉 러브로 이성을 오빠로 사랑해서는 못 쓴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재생』, 39면)

자유연애-결혼의 이상을 저버리고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모방하는 여성지식인들의 애정 행각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인정과 재생산의 연결고리를 끊는 역할을 한다. 여성 인물들에게 가혹하게 적용된 도덕적 결벽성은 여성 인물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무력화시킨다. 『흙』에서 남편 허승을 두고 김갑진과 하룻밤을 보낸 대가로 여성지식인 윤정선은 다리를 잃게 되고, 허승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남자와 결혼한 유순은 죽음에 이른다. 『재생』에서 신봉구를 사랑했으나 부자인 백윤희의 첩이 되고, 신봉구를 잊지 못해 신봉구와 밀회한 김순영은 그 결과 낳게 된 눈이 먼 딸과 더불어 자살한다.

‘사랑의 약속을 배반한 여성들에게 상징적 거세라는 형벌’<sup>24)</sup>이 내려짐으로써, 남성작가들의 소설에서 여성들의 문화자본은 소비적이고 퇴폐적일 뿐, 경제 자본이나 사회 자본, 상징 자본과 결합하지도 못하고, 그것들을 스스로 증식하지도 못하는 비생산적인 자본으로 표상되고 있는 것이다. 무릇 여성 지식인들은 자신의 학력과 외모를 무기로 돈을 대주는 남자와 결혼할 뿐 스스로 경제자본을 취득하거나 사회연결망을 형성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성지식인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남성 중심의 사회연결망에 포획되거나 버려지는 것이다.

이광수 소설에서 재현된 여성의 문화자본이 작동하는 방식은 동시대의 여성작가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여성지식인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나혜석의 『경희』에서 경희는 일본유학을 다녀온 여성으로, 집안 청소와 마느질, 음악에도 소질이 있을 뿐 아니라 집안 가구나 그릇의 배치를 아주 잘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일본에서

24) 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97면.

바느질 강습소에 다녀서 첫 월급은 천오백 냥을, 3년 뒤에는 이천오백 냥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이다. 순영은 보통 오백 냥을 받는 다른 여성에 비하여 매우 높은 월급을 받고 있으며, 육백이십 냥을 받는 교사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희는 일반 부인보다 가사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겸손하다. 경희는 여학생들이 듣는 일반적인 욕들, 바느질을 못한다든가 빨래를 못한다든가 살림을 못한다든가 등의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신하게 행동한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그녀의 학력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당대의 여성지식인들이 가정생활로 수렴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작가들의 소설에서 여성 교육의 문제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대중의 평판과 경제적 자립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위 작품에서 김부인이 딸인 경희의 수입에 대해 갖는 자부심은 장차 사돈마님이 될 이 부인의 여성 교육에 대한 의식에 변화를 일으킨다.

더구나 감독이 왔더라 말이며, 존대를 하더라 것이며, 사내도 여간한 군주사(郡主事) 째은 바랄 수도 없는 월급을 이천냥까지 주겠더라 말은 들을 때는 설마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난다. 사돈마님은 아직도 참말로는 알고 싶지 않으나 어쩐지 김 부인의 말이 거짓말같지는 아니하다. 또 벽에 걸린 수(繡)도 확실히 자기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설세없이 바퀴 구르는 재봉틀 소리가 당장 자기 귀에 들린다. 마님 마음은 도무지 이상하다. 무슨 큰 실패나 한 것도 같다. 양심은 스스로 자복(自服)하였다. ‘애가 여학생을 잘못 알아 왔다. 정말 이 집 딸과 같이 계집에도 공부를 시켜야겠다. 어서 우리집에 가서 내외시키던 손녀딸들을 내일부터 학교에 보내야겠다’고 꼭 결심을 했다. (나혜석, 『경희』, 이상경 편집교열, 『나혜석전집』, 태학사, 2000, 85면)

여성작가인 나혜석의 작품은 여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여, 여성의 교육과 사회진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교육이라는 문화자본을 통해서 경제자본과 사회자본, 상징자본을 확장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의지는 그녀들의 고급학력에 의한 문화취향, 즉 ‘도화시간에 배운 색과 색의 조화’나 ‘음악시간에 배운 음률’을 이용하여, 주발과 도기, 칠기, 사발, 은쟁반, 큰 항아리를 배치하는 데 적용하고, ‘가정학에서 배운 질서’나 ‘위생학

에서 배운 정리, '소제(掃除)방법' 등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가족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게 한다. '보수'없이 하는 이러한 노력은 여성 교육과 그것의 산물인 문화취향을 다른 자본으로 전환·확장하거나, 다른 자본과 결합하게 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위의 비교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근대소설에서 여성의 문화자본이 작동하는 방식은 글쓰는 주체의 성차에 따라 차이를 드러낸다. 이광수의 『재생』에서 문화자본의 작동방식은 친밀한 사적 영역으로서의 '자유연애-결혼'의 문법을 창출하지만, 경제자본이 취약한 여성들은 경제자본과 사회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남성중심의 젠더 권력의 재편성에 동원된다. 고학력의 여성 지식인들이 추구하던 자유연애라는 낭만적 사랑은 영육일치의 사랑을 추구하며 '자유연애-결혼'이라는 복합체를 형성하고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고착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인물의 문화자본은 다른 자본들과 연계하거나 다른 자본들을 증식하는 데 실패하고, 철저하게 고립되어 경제자본이나 사회자본, 상징자본과 연계된 공적 영역으로 전환되지 못한다.

더구나 대부분의 경우에 경제 자본을 결여한 여성지식인들, 예컨대 『무정』의 영채, 『흙』의 유순, 『재생』의 순영, 『유정』의 문임 등은 결과적으로 자유연애-결혼에 이르지 못한다. 경제자본을 결여한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겁탈당하거나 버림받는 과정을 거치며, 그렇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결혼에 이르지 못한다. 이와 같이 이광수 소설은 자유연애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자유연애-결혼의 플롯은 늘 경제 자본의 논리와 맞물려 있다.

또한 이광수 소설을 비롯한 남성작가들의 텍스트에서 문화자본은 성(性)에 따라 자본의 축적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성(性)과 관련된 도덕성의 문제도 이중적인 논리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문학적 재현에서 문화적 생산수단을 전유한 남성 지식인집단이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가치를 형상화함으로써 젠더의 차이를 재구성하였음을 드러낸다. 또한, 남성중심적 젠더의 형상화가 여성(지식인)의 표상을 어떻게 공격하고 굴절시켰는가, 또는 그것에 얼마나 폭력적이었나를 드러내고 있다.



## 5. 남성들의 문화자본과 젠더 역학

이광수 소설에서 남성들의 문화자본은 여성지식인들의 문화자본과 달리 경제자본과 사회자본, 상징 자본과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재생산된다. 문화자본의 증식은 이광수 소설에서 다양한 변이를 생성하며 반복되고, 남성지식인 중심의 젠더 논리의 토대로 작용한다. 『무정』에서 고아이며 영어교사였던 이형식은 교회장로이자 신흥 부자의 딸인 김선형과 결혼하고, 『흙』에서 고아인 허승은 독학을 해서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후, 재력가인 윤참관의 딸 정선과 결혼하게 된다. 『재생』에서 신봉구는 가난한 홀어머니의 외아들로 미두중개소와 기미 중매소 주인의 딸 김경주의 사위로 낙점된다. 남성지식인의 문화자본이 결혼을 매개로 경제자본과 결합하는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무정』에서 이형식은 ‘자유연애-결혼’과 더불어 장인의 도움으로 선형과 함께 미국 시카고 대학에 유학을 가서 귀국 후, 자신들의 지식을 민족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 『흙』에서 허승은 고등문관시험 합격 후 윤정선과 결혼하고 살여울로 내려와 농촌운동에 헌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화자본과 경제자본, 상징자본이라는 자본의 증식 과정을 보여준다.<sup>25)</sup>

하지만 위 두 작품은 여성의 문화자본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무정』에서 선형과 함께 미국유학을 다녀온 형식은 여성의 문화자본에 긍정적이고, 자신의 문화자본과 ‘연애-결혼’의 결과 주어지는 경제 자본의 혜택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문화자본을 긍정하고, 자신의 문화자본과 경제 자본의 결합을 부정하지 않으며, 여성인물과 함께 사회적 존경이라는 상징자본을 축적한다.

25) 『흙』에서 근대 지식인 계층이 결혼을 통해 경제자본과 결합하는 과정은 허승 이전에 윤참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방관료인 윤참관은 부유한 세력가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상류계층에 진입하였다. 윤참관이 그러한 자본증식 효과를 계속 향유한 것과 달리 허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인 살여울에 내려와 농촌계몽에 헌신함으로써, 사회적 존경, 상징자본을 획득하고 있으며, 정선의 타락과 회개를 통해 여성과의 관계에서 도덕적으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윤영옥, 2010: 304~308 참고).

이에 비해 『흙』에서 허승은 참다운 자유연애에 적극적으로 매개되지 못한 채 윤정선과 결혼을 하게 된다. 허승의 고등문관시험 합격과 성실성을 높이 평가한 윤참관의 결정에 따라 허승과 윤정선이 결혼하기 때문이다. 가정생활 및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정선의 불륜과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생활은 급기야 정선의 자살시도와 신체적 불구로 이어지고, 다리 한 쪽을 잃은 정선은 허승의 농촌계몽에 동참하기 위해 여울로 내려온다. 윤정선의 변화는 이른바 고학력 여성(신여성)에 대한 차별과 순치, 즉 남성중심 사회구조로의 흡수를 의미한다.

반면 윤참관의 재산에 대한 모든 관심을 내려놓은 채, 시골에 와서 농촌계몽에 헌신하는 허승은 자신의 결혼 과정에 개입되었던 경제자본과 결별하고, 변호사라는 새로 취득한 사회적 지위와 법률지식을 이용하여 사회연결망을 확장하고, 농민들의 존경과 사랑이라는 상징자본을 증식하게 된다. 이것은 근대 사회에서 남성지식인이 자신의 문화자본을 기반으로 경제자본과 사회자본, 그리고 상징자본과 결합하여 자신의 다양한 자본을 증식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성지식인들이 소비적인 문화취향 때문에 남성 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남성 지식인들은 점차 여성 집안의 경제자본에서 독립한다. 『흙』에서 허승이 살여울로 내려오는 내용이나 『재생』에서 신봉구가 직장생활과 투자를 통해 부를 형성하는 과정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남성지식인들은 자신의 문화자본을 활용하여 다양한 자본을 축적하면서 존경받는 사회 지배계층의 입지를 다지는 반면, 여성지식인들은 문화자본을 향락과 퇴폐, 애정없는 결혼, 불륜 등에 연루됨으로써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으며, 스스로 이용 가능한 사회연결망을 형성하지 못한다.

『재생』에서 신봉구와 김순영의 관계는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김순영이 돈에 매개되어 사랑하는 남자를 버리고 ‘자유연애’(사랑)도 없고, 도덕성이나 합법성도 없이 부자의 첩이 되는 반면, 신봉구는 자신의 지식을 통해 사회적 인정을 받고 부유한 주인의 딸과 혼인을 기약하게 된다. 『재생』에서 순영의 ‘연애-결혼’의 향방은 결과적으로 돈의 크기에 좌우되어 능동성을 상실하지만, 남성주인공 신봉구의 ‘연애-결혼’은 능동성을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자본과 사회자본, 상징자본을 모두 갖게 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에서 남성지식인 신봉구와 여성지식인 김순영은 고급학력과 문화취향, 사회에 헌신하는 자세 등 비슷한 출발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신봉구의 계층상승과 김순영의 자살이라는 극단적으로 상반된 결과에 이른다. 경제자본과 사회자본과 상징자본이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뿌리부르조아 계층에 속해 있는 여성지식인과 남성지식인의 결정적 차이는 남성들이 결혼을 통해 경제자본을 축적하고 사회에 헌신하여 사회적 존경을 받는 상징자본을 축적해갔다면, 여성지식인들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혼으로 경제자본을 소유하게 되지만 퇴폐와 향락을 때문에 사회적인 평판과 명성을 잃고, 중국에는 경제자본의 토대이던 결혼 생활마저 지속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자본의 상호축적에 이르지 못하고 고립된다.

이로써 ‘자유연애-결혼’복합체를 중심으로 전개된 남성지식인과 여성지식인의 결합 과정에는 근대 이후 형성된 자본의 동역학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식인 인물들의 우월한 문화자본과 열악한 경제자본, 사회자본 및 상징자본의 다양한 관계는 인물들의 애정과 결혼, 이별 등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자본을 둘러싼 자본들의 동역학은 근대의 젠더 재형성 과정에서 남녀 지식인들의 표상을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결론: 문화자본과 젠더 재형성

문학에 등장하는 성에 관련된 재현들은 실제 사회 현실을 둘러싸고 떠도는 이미지로 존재하며, 문학 속에 재현되는 인물들의 아비투스( habitus)는 사회적 친화성 속에서 인물들을 중개하는 자본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남성과 여성의 연애와 취향, 학력과 경제력, 사회적 영향력과 존경의 양상들은 당대 사회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경제자본, 상징자본의 역학 관계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근대 소설의 장에 재현된 여성과 관련된 사랑, 문화, 취향의 상호교섭 양상은 근대 젠더 형성의 장에서 기존의 구도를 지속하거나 변동시키려는 전략의 원칙에 따르게 된다.

근대 자본의 다양한 구도 속에서 자유연애는 당시 여성들 간,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계급을 조정하는 개념으로서 근대적 젠더 재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근대소설의 자유연애와 관련된 자본들의 재현은 남녀 지식인들의 공적 표상을 조정하는 다양한 젠더 권력의 작용과 관련되어 있다. 사적 영역의 자유연애가 결혼이라는 공적 영역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사회 자본이나 경제자본과의 교섭작용을 경유하게 된다.

이광수를 비롯한 남성작가들의 소설에서 나타난 ‘자유연애-결혼’의 플롯은 상당 부분 남녀 지식인 계층의 자본의 동역학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재생』의 자유연애-결혼 플롯은 당대 남성작가들의 텍스트들과 유사하여, 상투적인(혹은 전형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여성 젠더의 변모와 굴절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재생』은 한국 근대의 여성지식인의 표상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전개되었음을 드러내면서, 자본의 논리에 의해 젠더 표상 투쟁에서 여성 지식인과 남성지식인의 헤게모니가 조정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텍스트에 나타난 사랑의 문법은 인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자본들의 동역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 근대 자유연애-결혼의 플롯에는 사랑의 문법 이면에 자본의 문법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대 초기에 자유연애는 낭만적 사랑에서 시작하지만 자본들의 교차로에서 길을 잃고 헤맨다. 인물들의 문화 자본의 획득과 다른 자본들과의 이합집산은 근대 젠더 담론의 기틀이 된다. 근대 문화 취향의 결정체이던 자유연애는 경제 자본 및 사회 자본과 결부하여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과 남성의 우월성 내지 도덕성을 조장하는 이미지로 조정된다. 이러한 조정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 여성지식인의 표상은 여성의 문화 자본의 불임성과 남성문화자본의 생식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남녀지식인들을 둘러싼 일상생활의 재구성은 자본의 동역학을 통해 젠더 표상의 상징 투쟁과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경제 자본과 사회자본이 취약했던 여성지식인은 자신들의 문화자본을 공적 사회제도로 편입시키지 못하고 사회적 평판이 폄훼되는 상징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 주제어 : 이광수, 『재생』, 문화자본, 공론장, 젠더 재형성, 자본의 상호축적, 상징폭력, 신여성.

## 〈참고문헌〉

### 1. 1차자료

이광수, 『이광수 문학전집』 제1~11권, 삼중당, 1965.

이상경 편집 교열, 『나혜석전집』, 태학사, 2000.

### 2. 2차자료

공종구, 「채만식의 초기소설에 나타난 ‘가족과 자본’」, 한국언어문학회, 『한국언어문학』 제82집, 2012.

구인모, 「『무정』과 우생학적 연애론」, 한국비교문학회, 『비교문학』 제28집, 2002.

구인모, 「한일 근대문학과 엘렌 케이」, 한국여성문학회, 『여성문학연구』 제12집, 2004.

권보드래, 「연애의 형성과 독서」,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 제7호, 2001.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김귀옥·김순영·배은경 편, 『젠더연구의 방법과 사회분석』, 도서출판 다해, 2006.

김동식, 「연애와 근대성」,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 제18집, 2001.

김미영, 「1920년대 여성담론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3.

김용학,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2003.

김중수, 「근대소설 연구방법의 한 경향-『무정』 연구사 중 ‘사랑-연애담론’을 중심으로」, 한국비평문학회, 『비평문학』 제27호, 2007.

김주현, 「자유연애와 이상의 파국」, 우리문화회, 『우리문학연구』 제26집, 2009.

김지영, 『연애라는 표상』, 소명출판, 2007.

류석춘, 장미혜 외, 『한국의 사회자본: 역사와 현실』, 백산출판사, 2008.

류종열·남부진·이태숙, 「근대의 성립과 연애의 발견」, 한국문화회, 『한국문학논총』 제43집, 2006.

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신수정,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 여성의 재현양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3.

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편역,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그린,

2003.

윤영옥, 『1920~30년대 여성 잡지에 나타난 신여성 개념의 의미변화와 사회문화적 의의』, 국어문화회, 『국어문학』 제40집, 2005.

윤영옥, 『한국 근대 농민여성 일상의 문학적 재현』,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0집, 2010.

윤조원, 『여성의 교환과 상징적 폭력-부르디외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의 몸-시각·쟁점·역사』, 창작과비평사, 2005.

이혜령, 『한국 근대소설의 섹슈얼리티-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1.

이화형·유진월, 『서구 연애론의 유입과 수용양상』, 국제어문화회, 『국제어문』 제32집, 2004.

임명진, 『<태평천하>에 나타난 ‘자본’의 문제』, 한국언어문화회, 『한국언어문학』 제77집, 2011.

정혜영, 『근대를 향한 시선- 이광수 『무정』에 나타난 ‘연애’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화회, 『여성문학연구』 제3호, 2000.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홍성민, 『문화와 아비투스』, 나남출판, 2000.

홍성민 편저, 『문화와 계급-부르디외와 한국사회』, 동문선, 2002.

홍혜원, 『이광수소설의 이야기와 담론』, 이화여대출판부, 2002.

Broudieu, Pierre, 정일준 역,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Language and Symbolic Power*』, 새물결, 1995.

Broudieu, Pierre, 최종철 역, 『구별짓기 *La Distinction*』, 새물결, 1995.

Coleman, James, S., *Individual Interest and Collective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Foucault, Michel, 이규현 역, 『성의 역사1』, 나남, 1990.

Giddens, Anthony,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1996.

Lin, Nan, 김동윤·오소현 역, 『사회자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Abstract]

**Dynamics of the Free Love, Culture Capital and  
Reformation of Korean Modern Gender**  
— Focusing on *Jaesaeng* by Lee Kwang-su

Yun, Young-ok

Free love was the cultural symbol of Korean modern intellectual class. Literary representations of free love had relation with power functions which adjusted public images of intellectuals. By cultural tastes, modern fictions described the process that free love in individual privacy had entered into marriage in public space. And cultural tastes were featured through mutual accumulations of economic capital, social capital, symbolic capital.

‘Free love-marriage’ plots of modern fictions including *Jaesaeng* were involved in interactions among men intellectuals’ capitals and women intellectuals’ that. Specially ‘free love-marriage’ plots were unveiled inflection process of women gender. At *Jaesaeng*, women intellectuals and men intellectuals met by similar culture tastes. The cultural capitals of women intellectuals were isolated and could not be expanded reproduction. But the cultural capitals of men intellectuals which combined with economic and social, symbolic capitals reproduced and spread. These representations of free love with capitals accentuated mens’ supremacy and aggravated women’s social inequality.

‘Free love-marriage’ plots coordinated hierarchy of gender symbols through reconstitution on daily life. Because women intellectuals had no economic capital and social capital, they could not take part in the public social system and were exposed to symbolic violence which damaged their social reputations.

【KeyWords】 : *Jaesaeng*(재생), Lee Kwang-su, free love, culture taste, cultural capital, public sphere, gender reformation, symbolic violence, New Woman, mutual accumulation of capitals.

---

---

윤영옥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560-87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세내로 559.

서곡엘지아파트 104동 1503호

전자우편: yunok254@hanmail.net

---

---

이 논문은 2014년 1월 2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3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3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